



매길로이·우즈 '신·구 골프황제' 격돌

PGA 투어 챔피언십 내일 개막... 우승 상금 1천만달러 '돈방석'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800만달러)이 20일(이하 현지시각)부터 미국 조지아주에 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장(파70·7154야드)에서 시작된다.

이번 대회는 시즌 정규 대회와 플레이오프 1~3차전까지 페덱스컵 랭킹 상위 30위 안에 든 선수들만 출전할 수 있다.

현재 페덱스컵 순위는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가 1위를 달리는 가운데 타이거 우즈, 니 와트니, 필 미켈슨(이상 미국) 순으로 늘어서 있다. 그러나 이전까지 순위는 큰 의미가 없다.

매길로이의 점수가 2500점이고 30위인 스킷 피어시(미국)의 점수는 210점이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피어시가 우승하면 2500점을 받아 2710점이 되고 매길로이가 최하위인 30위로 밀릴 경우 205점을 보태는데 그쳐 2705점에 머문다.

그렇기 때문에 2500점, 2250점, 2000점, 1800점 순으로 늘어선 1~4위 등 상위권 선수들의 현재 순위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다. 이번 대회 우승자가 결국 페덱스컵 우승

상금 1000만 달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2007년 시작된 페덱스컵 플레이오프에서 투어 챔피언십 우승자가 페덱스컵 우승까지 차지한 예가 세 번이나 된다.

사실 페덱스컵은 우승을 못하더라도 엄청난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 '돈 잔치'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 가운데 최하위인 페덱스컵 랭킹 30위로 시즌을 마쳐도 보너스 17만 5000달러(약 1억9500만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팬들의 관심은 역시 매길로이와 우즈의 '신·구 골프 황제'의 대결에 쏠려 있다.

세계 랭킹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매길로이는 플레이오프 2, 3차전인 도이체방크 챔피언십과 BMW 챔피언십을 휩쓸며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페덱스컵 포인트를 재조정하지 않았다면 2위 우즈와의 격차가 3232점으로 이미 1천만달러의 주인공은 매길로이로 결정됐을 정도의 압도적인 강세다.

PGA 투어는 이렇게 플레이오프 최종전을 남긴 상황에서 이미 시즌 우승자가 결정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플레이오프 3차

전이 끝난 뒤 페덱스컵 점수를 재조정하는데 올해 매길로이가 이 제도 탓에 불이익을 당하게 된 셈이다.

2007년과 2009년 페덱스컵 챔피언 우즈도 역전의 희망을 놓지 않았다. 세 차례 플레이오프 대회에서 우승은 없지만 도이체방크 챔피언십 3위, BMW 챔피언십 공동 4위 등 꾸준한 성적을 내며 2위 자리에서 역전을 노린다.

지난해 페덱스컵 우승자 빌 가스(미국)가 페덱스컵 랭킹 32위에 머물러 투어 챔피언십 진출이 좌절된 가운데 2010년 우승자 짐 퓨릭(미국)은 18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 선수로는 재미교포 존 허(22)가 26위로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했다.

PGA 투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페덱스컵 챔피언십을 전망했는데 전문가 10명 가운데 4명이 우즈의 손을 들어줬고 매길로이의 우승을 전망한 전문가는 2명이었다.

나머지 4명은 애덤 스콧(호주), 보 반 켈트, 제이슨 더프너, 키건 브래들리(이상 미국)의 '깜짝 우승'을 점쳤다.

골프 전문 케이블-위성 채널인 SBS골프가 중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명품 옆치기

18일 강원 태백시 고원체육관에서 열린 제21회 국방부장관기 전국 단체 대항 태권도대회 겸 2013년도 국가대표선수 선발전 대회 군선수 부문 남자 -68kg급 경기에서 정진규(오른쪽) 선수가 옆치기 공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업핸드볼 최강자 가린다

내일부터 코리아리그 PO 남녀부 2·3위 단판 승부

국내 남녀 실업핸드볼 최강자를 가리는 2012 SK핸드볼 코리아리그 플레이오프가 20일부터 서울 송파구 SK핸드볼 경기장에서 시작된다. 플레이오프는 정규리그 2, 3위 팀 간 단판 승부로 20일 열리고 정규리그 1위와 플레이오프 승자가 맞붙는 챔피언결정전은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펼쳐진다.

남자부에서는 2009년 1회 대회부터 한 번도 우승을 놓치지 않은 두산이 9승 1무2패의 압도적인 승률로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한 가운데 2위 경남체육회(7승1무4패)와 3위 웰컴코코사(5승1무6패)가 플레이오프에서 맞붙는다.

4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두산은 지난해 윤경신, 박규기가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지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이재우와 정의경, 윤경민 등이 견제하고 방어를 1, 3위에 오른 수문장 박찬영, 이동명이 번갈아 골문을 지키고 있다.

이에 비해 여자부는 챔피언결정전까지 혼전 양상이다. 플레이오프에는 2위 인천시체육회(10승4패)와 3위 SK 슈가글라이더즈(9승5패)가 진출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지난해 우승팀 인천시체육회가 앞서지만 SK의 상승세도 무시할 수 없다. SK는 최근 7경기에서 6승1패를 기록하며 정규리그 마지막 날 극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팀 분위기가 매우 좋다.

1, 2회 대회에서 우승했던 삼척시청은 역시 국가대표 심해인이 런던올림픽에서 팔을 다치는 바람에 경기에 뛠 수 없다. 그러나 센터백 정지해와 정규리그 MVP 골키퍼 박미라 등의 활약으로 11일 인천시체육회를 물리쳐 선수단 사기가 올라오는 상태다.

삼척시청은 인천시체육회와 1승1패, SK를 상대로는 2전 전승을 거뒀다. 22일 여자부 결승 1차전을 스포츠 전문 케이블-위성 채널인 KBS N이 오후 1시부터 생중계하고 23일 남자부 결승 2차전은 KBS-ITV가 오후 2시부터 생중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플레이오프에는 2위 인천시체육회(10승4패)와 3위 SK 슈가글라이더즈(9승5패)가 진출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지난해 우승팀 인천시체육회가 앞서지만 SK의 상승세도 무시할 수 없다. SK는 최근 7경기에서 6승1패를 기록하며 정규리그 마지막 날 극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팀 분위기가 매우 좋다.

1, 2회 대회에서 우승했던 삼척시청은 역시 국가대표 심해인이 런던올림픽에서 팔을 다치는 바람에 경기에 뛠 수 없다. 그러나 센터백 정지해와 정규리그 MVP 골키퍼 박미라 등의 활약으로 11일 인천시체육회를 물리쳐 선수단 사기가 올라오는 상태다.

삼척시청은 인천시체육회와 1승1패, SK를 상대로는 2전 전승을 거뒀다. 22일 여자부 결승 1차전을 스포츠 전문 케이블-위성 채널인 KBS N이 오후 1시부터 생중계하고 23일 남자부 결승 2차전은 KBS-ITV가 오후 2시부터 생중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펠프스·펠릭스

미 스포츠 올해의 선수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27)와 여자 육상스타 엘리스 펠릭스(27)가 올해 미국 스포츠를 빛낸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미국올림픽위원회(USOC)는 런던올림픽에서 활약한 펠프스와 펠릭스를 2011~2012 올해의 스포츠선수 남녀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8일(한국시각) 발표했다.

펠프스는 올해 런던 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보태 올림픽에서만 총 22개(금18·은2·동2)의 메달을 따고 화려했던 선수 생활을 끝냈다.

미국의 간판 스프린터인 펠릭스는 200m를 비롯해 400m 계주와 1600m 계주에서 우승, 런던올림픽 3관왕에 올랐다.

펠프스가 USOC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것은 2004년, 2008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펠릭스는 처음 이 상을 탔다.

올해의 팀에는 여자 조정 에이트 올림픽 대표팀이 뽑혔다. 패럴림픽 부문에서는 18세의 휠체어 육상 선수 레이먼드 마틴과 런던 패럴림픽 수영에서 8개의 메달(금5, 은2, 동1)을 쓸어담은 제시카 롱이 각각 올해의 남녀 선수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양용은, 국내파와 샷대결

KGT 매치플레이... 강경남·홍순상·김대현 등 출전

양용은(40·KB금융그룹)이 한국프로골프투어(KGT) 매치플레이 대회에 출전해 국내파 선수들과 승부를 펼친다.

양용은은 21일부터 사흘간 평창 알펜시아 트로피 골프장(파72·7155야드)에서 열리는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총상금 6억 원·우승상금 1억5000만원)에 나선다.

KGT 유일의 매치플레이 방식인 이번 대회의 출전자는 4월과 6월에 걸쳐 열린 64강전을 통해 가려졌다.

매치플레이는 선수들이 1대1로 겨루는 방식으로 각 홀에서는 타수가 적은 선수가 이기며, 이긴 홀의 수가 더 많으면 경기에서 승리한다.

양용은은 지난 4월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출전하고 나서 64강전에 참가해 김주연(32)을 꺾고 32강에 합류했다.

올 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톱 10에 한 번도 들지 못하는 등 부진했던 양용은은 이 대회와 다음 달 한국오픈 등 고국에서 명예 회복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파 선수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이 대회 초대 챔피언(2010년)이자 올 시즌 삼급랭킹 3위인 강경남(29·우리투자증권)과 디펜딩 챔피언 홍순상(31·SK텔레콤)이 역대 우승자의 자존심을 걸고 경기에 나선다.

김비오(22·네스)에 이어 삼급랭킹 2위에 올라 있는 박상현(29·메리츠금융그룹)과 장

타자 김대현(24·하이트론) 등은 시즌 첫승에 도전한다.

올 시즌 KGT에서 1승을 챙긴 이인우(40·현대스위스)와 최진호(28·현대아이스크)가 두 번째 우승트로피를 차지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여기에 일본 등 해외 무대에서 활동하는 류현우(31)와 장동규(24), 데이비드 오(31·테일러메이드)도 가세해 우승 경쟁을 벌인다.

한편 32강에 든 이승호(26·에스오일)가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대회 참가차 출전하지 못하면서 17일 패자부활전을 통해 마지막 출전권을 거머쥔 김병준(30·타이틀리스트)이 어떤 성적을 기록할지도 관심사다.

J골프가 매일 오후 3시부터 생중계한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해의 및 섬은 계제가 불가합니다. (유지만 가능)

▲(원)광주서석 산악회 9월20일(목) 인천시 강화군 마니산, 운천현대산악회와 약 06:30, 인천사거리 06:33, 화정동 대주산약 06:40, 백운동 토마리 06:50, 롯데백화점약 07:00, 동신고양 07:10, 문예회관후문 07:25 T. 010 4031 4401

9월 22일(토) ▲남도산사랑 9/22(토) 경단산, 경기 하남, 05:30 롯데마트월드점, 05:45 시청주차장건너편, 06:00 문예회관후문 *다음카페: 남도산사랑 T. 010 4741 4433

▲광주산행지킴이 9/22(토)-23(일) 설악산 한계령, 대청봉, 천불봉 특별산행, 월드컵경기장(상무수익성 최상원룸 구매) *2억8천만원 매대가 월500만원 수입! *신규 리모델링 원룸 17개 (상하방 별도, 공실 무) *지하 1층 지상 4층(453m) T. 010-2659-9230

정권년월 07:20, 상무지구무각사 입구 07:30, 구교육점 07:45, 현대백화점(상무)출입구(상무) 07:50, 문예회관후문 07:55, 동신고양 08:00, 문예회관후문 08:10, 문예회관후문 08:20, 문예회관후문 08:30, 문예회관후문 08:40, 문예회관후문 08:50, 문예회관후문 09:00, 문예회관후문 09:10, 문예회관후문 09:20, 문예회관후문 09:30, 문예회관후문 09:40, 문예회관후문 09:50, 문예회관후문 10:00, 문예회관후문 10:10, 문예회관후문 10:20, 문예회관후문 10:30, 문예회관후문 10:40, 문예회관후문 10:50, 문예회관후문 11:00, 문예회관후문 11:10, 문예회관후문 11:20, 문예회관후문 11:30, 문예회관후문 11:40, 문예회관후문 11:50, 문예회관후문 12:00, 문예회관후문 12:10, 문예회관후문 12:20, 문예회관후문 12:30, 문예회관후문 12:40, 문예회관후문 12:50, 문예회관후문 13:00, 문예회관후문 13:10, 문예회관후문 13:20, 문예회관후문 13:30, 문예회관후문 13:40, 문예회관후문 13:50, 문예회관후문 14:00, 문예회관후문 14:10, 문예회관후문 14:20, 문예회관후문 14:30, 문예회관후문 14:40, 문예회관후문 14:50, 문예회관후문 15:00, 문예회관후문 15:10, 문예회관후문 15:20, 문예회관후문 15:30, 문예회관후문 15:40, 문예회관후문 15:50, 문예회관후문 16:00, 문예회관후문 16:10, 문예회관후문 16:20, 문예회관후문 16:30, 문예회관후문 16:40, 문예회관후문 16:50, 문예회관후문 17:00, 문예회관후문 17:10, 문예회관후문 17:20, 문예회관후문 17:30, 문예회관후문 17:40, 문예회관후문 17:50, 문예회관후문 18:00, 문예회관후문 18:10, 문예회관후문 18:20, 문예회관후문 18:30, 문예회관후문 18:40, 문예회관후문 18:50, 문예회관후문 19:00, 문예회관후문 19:10, 문예회관후문 19:20, 문예회관후문 19:30, 문예회관후문 19:40, 문예회관후문 19:50, 문예회관후문 20:00, 문예회관후문 20:10, 문예회관후문 20:20, 문예회관후문 20:30, 문예회관후문 20:40, 문예회관후문 20:50, 문예회관후문 21:00, 문예회관후문 21:10, 문예회관후문 21:20, 문예회관후문 21:30, 문예회관후문 21:40, 문예회관후문 21:50, 문예회관후문 22:00, 문예회관후문 22:10, 문예회관후문 22:20, 문예회관후문 22:30, 문예회관후문 22:40, 문예회관후문 22:50, 문예회관후문 23:00, 문예회관후문 23:10, 문예회관후문 23:20, 문예회관후문 23:30, 문예회관후문 23:40, 문예회관후문 23:50, 문예회관후문 24:00, 문예회관후문 24:10, 문예회관후문 24:20, 문예회관후문 24:30, 문예회관후문 24:40, 문예회관후문 24:50, 문예회관후문 25:00, 문예회관후문 25:10, 문예회관후문 25:20, 문예회관후문 25:30, 문예회관후문 25:40, 문예회관후문 25:50, 문예회관후문 26:00, 문예회관후문 26:10, 문예회관후문 26:20, 문예회관후문 26:30, 문예회관후문 26:40, 문예회관후문 26:50, 문예회관후문 27:00, 문예회관후문 27:10, 문예회관후문 27:20, 문예회관후문 27:30, 문예회관후문 27:40, 문예회관후문 27:50, 문예회관후문 28:00, 문예회관후문 28:10, 문예회관후문 28:20, 문예회관후문 28:30, 문예회관후문 28:40, 문예회관후문 28:50, 문예회관후문 29:00, 문예회관후문 29:10, 문예회관후문 29:20, 문예회관후문 29:30, 문예회관후문 29:40, 문예회관후문 29:50, 문예회관후문 30:00, 문예회관후문 30:10, 문예회관후문 30:20, 문예회관후문 30:30, 문예회관후문 30:40, 문예회관후문 30:50, 문예회관후문 31:00, 문예회관후문 31:10, 문예회관후문 31:20, 문예회관후문 31:30, 문예회관후문 31:40, 문예회관후문 31:50, 문예회관후문 32:00, 문예회관후문 32:10, 문예회관후문 32:20, 문예회관후문 32:30, 문예회관후문 32:40, 문예회관후문 32:50, 문예회관후문 33:00, 문예회관후문 33:10, 문예회관후문 33:20, 문예회관후문 33:30, 문예회관후문 33:40, 문예회관후문 33:50, 문예회관후문 34:00, 문예회관후문 34:10, 문예회관후문 34:20, 문예회관후문 34:30, 문예회관후문 34:40, 문예회관후문 34:50, 문예회관후문 35:00, 문예회관후문 35:10, 문예회관후문 35:20, 문예회관후문 35:30, 문예회관후문 35:40, 문예회관후문 35:50, 문예회관후문 36:00, 문예회관후문 36:10, 문예회관후문 36:20, 문예회관후문 36:30, 문예회관후문 36:40, 문예회관후문 36:50, 문예회관후문 37:00, 문예회관후문 37:10, 문예회관후문 37:20, 문예회관후문 37:30, 문예회관후문 37:40, 문예회관후문 37:50, 문예회관후문 38:00, 문예회관후문 38:10, 문예회관후문 38:20, 문예회관후문 38:30, 문예회관후문 38:40, 문예회관후문 38:50, 문예회관후문 39:00, 문예회관후문 39:10, 문예회관후문 39:20, 문예회관후문 39:30, 문예회관후문 39:40, 문예회관후문 39:50, 문예회관후문 40:00, 문예회관후문 40:10, 문예회관후문 40:20, 문예회관후문 40:30, 문예회관후문 40:40, 문예회관후문 40:50, 문예회관후문 41:00, 문예회관후문 41:10, 문예회관후문 41:20, 문예회관후문 41:30, 문예회관후문 41:40, 문예회관후문 41:50, 문예회관후문 42:00, 문예회관후문 42:10, 문예회관후문 42:20, 문예회관후문 42:30, 문예회관후문 42:40, 문예회관후문 42:50, 문예회관후문 43:00, 문예회관후문 43:10, 문예회관후문 43:20, 문예회관후문 43:30, 문예회관후문 43:40, 문예회관후문 43:50, 문예회관후문 44:00, 문예회관후문 44:10, 문예회관후문 44:20, 문예회관후문 44:30, 문예회관후문 44:40, 문예회관후문 44:50, 문예회관후문 45:00, 문예회관후문 45:10, 문예회관후문 45:20, 문예회관후문 45:30, 문예회관후문 45:40, 문예회관후문 45:50, 문예회관후문 46:00, 문예회관후문 46:10, 문예회관후문 46:20, 문예회관후문 46:30, 문예회관후문 46:40, 문예회관후문 46:50, 문예회관후문 47:00, 문예회관후문 47:10, 문예회관후문 47:20, 문예회관후문 47:30, 문예회관후문 47:40, 문예회관후문 47:50, 문예회관후문 48:00, 문예회관후문 48:10, 문예회관후문 48:20, 문예회관후문 48:30, 문예회관후문 48:40, 문예회관후문 48:50, 문예회관후문 49:00, 문예회관후문 49:10, 문예회관후문 49:20, 문예회관후문 49:30, 문예회관후문 49:40, 문예회관후문 49:50, 문예회관후문 50:00, 문예회관후문 50:10, 문예회관후문 50:20, 문예회관후문 50:30, 문예회관후문 50:40, 문예회관후문 50:50, 문예회관후문 51:00, 문예회관후문 51:10, 문예회관후문 51:20, 문예회관후문 51:30, 문예회관후문 51:40, 문예회관후문 51:50, 문예회관후문 52:00, 문예회관후문 52:10, 문예회관후문 52:20, 문예회관후문 52:30, 문예회관후문 52:40, 문예회관후문 52:50, 문예회관후문 53:00, 문예회관후문 53:10, 문예회관후문 53:20, 문예회관후문 53:30, 문예회관후문 53:40, 문예회관후문 53:50, 문예회관후문 54:00, 문예회관후문 54:10, 문예회관후문 54:20, 문예회관후문 54:30, 문예회관후문 54:40, 문예회관후문 54:50, 문예회관후문 55:00, 문예회관후문 55:10, 문예회관후문 55:20, 문예회관후문 55:30, 문예회관후문 55:40, 문예회관후문 55:50, 문예회관후문 56:00, 문예회관후문 56:10, 문예회관후문 56:20, 문예회관후문 56:30, 문예회관후문 56:40, 문예회관후문 56:50, 문예회관후문 57:00, 문예회관후문 57:10, 문예회관후문 57:20, 문예회관후문 57:30, 문예회관후문 57:40, 문예회관후문 57:50, 문예회관후문 58:00, 문예회관후문 58:10, 문예회관후문 58:20, 문예회관후문 58:30, 문예회관후문 58:40, 문예회관후문 58:50, 문예회관후문 59:00, 문예회관후문 59:10, 문예회관후문 59:20, 문예회관후문 59:30, 문예회관후문 59:40, 문예회관후문 59:50, 문예회관후문 60:00, 문예회관후문 60:10, 문예회관후문 60:20, 문예회관후문 60:30, 문예회관후문 60:40, 문예회관후문 60:50, 문예회관후문 61:00, 문예회관후문 61:10, 문예회관후문 61:20, 문예회관후문 61:30, 문예회관후문 61:40, 문예회관후문 61:50, 문예회관후문 62:00, 문예회관후문 62:10, 문예회관후문 62:20, 문예회관후문 62:30, 문예회관후문 62:40, 문예회관후문 62:50, 문예회관후문 63:00, 문예회관후문 63:10, 문예회관후문 63:20, 문예회관후문 63:30, 문예회관후문 63:40, 문예회관후문 63:50, 문예회관후문 64:00, 문예회관후문 64:10, 문예회관후문 64:20, 문예회관후문 64:30, 문예회관후문 64:40, 문예회관후문 64:50, 문예회관후문 65:00, 문예회관후문 65:10, 문예회관후문 65:20, 문예회관후문 65:30, 문예회관후문 65:40, 문예회관후문 65:50, 문예회관후문 66:00, 문예회관후문 66:10, 문예회관후문 66:20, 문예회관후문 66:30, 문예회관후문 66:40, 문예회관후문 66:50, 문예회관후문 67:00, 문예회관후문 67:10, 문예회관후문 67:20, 문예회관후문 67:30, 문예회관후문 67:40, 문예회관후문 67:50, 문예회관후문 68:00, 문예회관후문 68:10, 문예회관후문 68:20, 문예회관후문 68:30, 문예회관후문 68:40, 문예회관후문 68:50, 문예회관후문 69:00, 문예회관후문 69:10, 문예회관후문 69:20, 문예회관후문 69:30, 문예회관후문 69:40, 문예회관후문 69:50, 문예회관후문 70:00, 문예회관후문 70:10, 문예회관후문 70:20, 문예회관후문 70:30, 문예회관후문 70:40, 문예회관후문 70:50, 문예회관후문 71:00, 문예회관후문 71:10, 문예회관후문 71:20, 문예회관후문 71:30, 문예회관후문 71:40, 문예회관후문 71:50, 문예회관후문 72:00, 문예회관후문 72:10, 문예회관후문 72:20, 문예회관후문 72:30, 문예회관후문 72:40, 문예회관후문 72:50, 문예회관후문 73:00, 문예회관후문 73:10, 문예회관후문 73:20, 문예회관후문 73:30, 문예회관후문 73:40, 문예회관후문 73:50, 문예회관후문 74:00, 문예회관후문 74:10, 문예회관후문 74:20, 문예회관후문 74:30, 문예회관후문 74:40, 문예회관후문 74:50, 문예회관후문 75:00, 문예회관후문 75:10, 문예회관후문 75:20, 문예회관후문 75:30, 문예회관후문 75:40, 문예회관후문 75:50, 문예회관후문 76:00, 문예회관후문 76:10, 문예회관후문 76:20, 문예회관후문 76:30, 문예회관후문 76:40, 문예회관후문 76:50, 문예회관후문 77:00, 문예회관후문 77:10, 문예회관후문 77:20, 문예회관후문 77:30, 문예회관후문 77:40, 문예회관후문 77:50, 문예회관후문 78:00, 문예회관후문 78:10, 문예회관후문 78:20, 문예회관후문 78:30, 문예회관후문 78:40, 문예회관후문 78:50, 문예회관후문 79:00, 문예회관후문 79:10, 문예회관후문 79:20, 문예회관후문 79:30, 문예회관후문 79:40, 문예회관후문 79:50, 문예회관후문 80:00, 문예회관후문 80:10, 문예회관후문 80:20, 문예회관후문 80:30, 문예회관후문 80:40, 문예회관후문 80:50, 문예회관후문 81:00, 문예회관후문 81:10, 문예회관후문 81:20, 문예회관후문 81:30, 문예회관후문 81:40, 문예회관후문 81:50, 문예회관후문 82:00, 문예회관후문 82:10, 문예회관후문 82:20, 문예회관후문 82:30, 문예회관후문 82:40, 문예회관후문 82:50, 문예회관후문 83:00, 문예회관후문 83:10, 문예회관후문 83:20, 문예회관후문 83:30, 문예회관후문 83:40, 문예회관후문 83:50, 문예회관후문 84:00, 문예회관후문 84:10, 문예회관후문 84:20, 문예회관후문 84:30, 문예회관후문 84:40, 문예회관후문 84:50, 문예회관후문 85:00, 문예회관후문 85:10, 문예회관후문 85:20, 문예회관후문 85:30, 문예회관후문 85:40, 문예회관후문 85:50, 문예회관후문 86:00, 문예회관후문 86:10, 문예회관후문 86:20, 문예회관후문 86:30, 문예회관후문 86:40, 문예회관후문 86:50, 문예회관후문 87:00, 문예회관후문 87:10, 문예회관후문 87:20, 문예회관후문 87:30, 문예회관후문 87:40, 문예회관후문 87:50, 문예회관후문 88:00, 문예회관후문 88:10, 문예회관후문 88:20, 문예회관후문 88:30, 문예회관후문 88:40, 문예회관후문 88:50, 문예회관후문 89:00, 문예회관후문 89:10, 문예회관후문 89:20, 문예회관후문 89:30, 문예회관후문 89:40, 문예회관후문 89:50, 문예회관후문 90:00, 문예회관후문 90:10, 문예회관후문 90:20, 문예회관후문 90:30, 문예회관후문 90:40, 문예회관후문 90:50, 문예회관후문 91:00, 문예회관후문 91:10, 문예회관후문 91:20, 문예회관후문 91:30, 문예회관후문 91:40, 문예회관후문 91:50, 문예회관후문 92:00, 문예회관후문 92:10, 문예회관후문 92:20, 문예회관후문 92:30, 문예회관후문 92:40, 문예회관후문 92:50, 문예회관후문 93:00, 문예회관후문 93:10, 문예회관후문